

6·4 지방선거 이후... '아름다운 동행'

완도 현직·후임 군수 나란히 국비 확보 활동

김종식 군수·신우철 당선인
문화재청 방문 예산 지원 건의
법화사 복원·충무공 동상 등
지역발전 뜻 모으며 민심 화합



김종식 완도군수(가운데)와 신우철 완도군수 당선인이 지난 23일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만나 완도군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건의를 하고 있다.

현직과 후임군수의 '아름다운 동행'이 지역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퇴임하는 김종식 군수와 7월 1일 민선 6기 완도군수로 취임하는 신우철 당선인이 지난 23일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중앙정부를 방문했다. 김 군수와 신 당선인은 통일시대 대장보고 대사가 건립했던 법화사 복원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만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 장정은 법화사 복원과 이 충무공 동상건립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을 높이 평가했다. 나 장정은 완도군에서 필요한 법화사 복원사업비(15억원)와 이 충무공 동상건립 사업비(12억원) 건의에 대해 "긍정

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정부 차원에서 해상거점 네트워크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 조명사업은 완도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9월에도 태풍피해 복구비 확보를 위해 김정술 군의회 의장과 함께 중앙정부를 방문, 예산 8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로 타 지

자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직군수와 취임을 앞둔 신임군수의 동행소식을 들은 완도군민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며 민회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당선인은 "김 군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도 함께 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행정 달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완

도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시대 대장보고 대사는 완도 정해진과 일본의 적산선원, 제주 서귀포에 법화사를 건립했다. 하지만 일본·제주 법화사는 복원됐으나 완도는 현재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완도군은 고금도내 묘당도에 이 충무공의 동상을 건립해 역사문화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북 소식

동학군 유해, 정읍 황토현에 안장키로

1995년 일본 대학서 봉환 박물관 보관 19년만에 안치

120년 동안 방치됐던 동학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광주일보 6월 3일자 13면)이 오는 11월께 정읍시내 황토현에 안장될 전망이다. 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농민군 지도자의 유해를 황토현 전적지에 모시자는 정읍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전주 역사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족회 등도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황토현 전적지는 봉기한 농민군이 관군을 대파했던 곳으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338억원을 투입해 기념공원을 만들려는 혁명의 성지다. 기념사업회는 이 공원에 동학농민혁명 희생자를 모실 대규모 묘역과 위령탑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정읍시가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해를 모실 적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해를 안장할 곳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이르면 7월중 가정 '유해 안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추진위에는 기념사업회와 정읍시, 유족회 등 동학 관련 단체들을 모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안장 시기는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일본에서 유해를 봉환하고도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사실상 방치한 것은 후손들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황토현 전적지에 모셔 영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학 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지난 1995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한 창고에서 '1906년 진도에서 휴스턴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와 함께 발견됐다. 이듬해에 기념사업회와 천도교 등의 노력으로 국내로 봉환됐으나 안치할 묘역을 찾지 못해 그동안 전주 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장수목장>



장수목장서 28일 이색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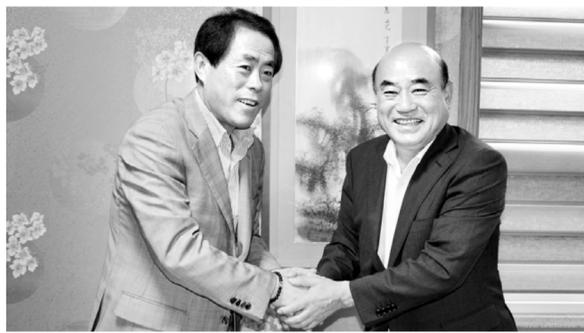
나눔실천·지역민 상생 위해 한국민요·클래식 등 공연

목장에서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한국마사회 산하 장수목장(목장장 신광후)은 28일 오후 5시 '렛츠런 팜(Let'sRun FARM) 장수와 함께하는 아미빌레 윈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연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에 위치한 장수목장은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역민과 상생하는 목장이 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했다. 이날 공연은 김장술의 한국민요 모음곡을 비롯해 관악곡 '인스턴트 콘서트(Instant ConCerts)'와 '러브 스토리(Love Story)', '헝가리아 댄스 5번', '밤하늘의 트럼펫(Il Silenzio)', '리베르 탱고'(Liber tango), '올리브의 목걸이'(El Bimbo)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들려준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양 정현복 시장 당선인·김재무 후보, 선거 앙금 털고 '맞손'

선거 때 서로 고소·고발 후유증 우려 됐지만 정 당선인, 먼저 손 내밀며 지역화합 계기 마련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인(오른쪽)과 김재무 후보가 지난 23일 화해의 약속을 나누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피 말리는 승부를 벌인 라이벌이 전격 화해하며 선거기간 동안 쌓인 앙금을 털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정현복 당선인과 김재무 후보는 지난 23일 광양 모 식당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화해의 약속을 나누며, 선거 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해모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만남은 정 당선인이 김 후보에게 연락해 선거과정의 잡음에 대해 조건 없이 사과하고 지역발전 상생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 김 후보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성사됐다. 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지자의 반대에도 만남에 동의한 김 후보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선거는 끝났다. 지역발전을 위해 발목잡기는 안된다"면서 "지역 화합을 위한 대의(大義)적 차원에서 당선인과 뜻을 같이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광양시장 선거 당시 맞대결을 벌인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만남에 따라 선거 과정의 갈등 해소와 지지자들간 화해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돼 선거 후유

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현복 후보는 36.5%를 얻어 6%의 근소한 차이로 30.5%를 얻은 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즉시입주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40~50%정도 대출가능
28평(26실) 9800만원	
56평(1실) 1억9600만원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